

# 중국 호남성 무릉원의 천문동과 황룡굴

소대화\*

## CheonMoon Hollow and HwangRyong Cave of an Arcadia in Hunan, China

Soh, Dea Wha

요약 - 중국 호남성의 장가계시 무릉원(武陵源)에는 위로 천문산(天門山)의 천문동(天門洞)과 땅 아래로 뻗어 있는 황룡동굴(黃龍洞窟)이 있다. 천문동은 오나라 때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황룡동굴은 이 지역에 분포된 석회암 지대로 말미암아 영겁의 세월을 통하여 생성된 지하생성물의 극치이다. 천문산 고봉의 하늘 맞닿은 높은 곳에 형성된 천문동혈(天門洞穴)과, 4층 규모로 된 땅속의 산 같은 석회동 구조물과 강물을 무색케 하는 지중벉길수로를 끌어안고 있는 황룡동굴은 과연 천산용동(天山龍洞)의 바로 그것이 아닌가.[답사보고서 중에서]

주요어 - 호남성, 무릉원, 천문산, 황룡동굴, 천산용동

### I. 들어가며

산속의 귀재(貴財)는 역시 산삼이다. 산삼을 찾아다니는 심마니들은 산삼이 발견될 수 있는 곳으로, ① 손으로 가볍게 후벼질 수 있는 마사토질 흙에서, ② 활엽수와 침엽수의 분포 비가 3:1 정도로 햇빛을 가려주고, ③ 주변에 인삼밭이 있어서 조류에 의한 씨앗의 이동이 가능한 지역”을 지적하여 산삼이 주로 자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산세경관과 지하 공간의 경이로움에 있어서 마치 산삼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천문동과 황룡동의 지리적 조건과 형태 및 그 비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천문동과 황룡동굴에 앞서 먼저 무릉원의 행정구역인 장가계(張家界)의 개요를 밝혀보자. 지리적으로는 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

으며, 동경 109°4'~111°20' 와 북위 28°52'~29°48' 사이에 위치한 중아열대 산원형 계절풍의 습한 기후에 속하고, 년 평균 기온은 16℃ 정도로서 연중 3모작까지도 가능하며 중국의 쌀 산지로도 꼽히는 지역이다.

장가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장가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4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떤 매력이 이토록 많은 관광객들을 이곳에 끌어들이는 걸까? 장가계의 공식 명칭은 무릉원(武陵源 : 우렁위안)이다. 도연명의 소설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상상 속 마을 '무릉도원(武陵桃源)'에서 따온 말이다.

무릉원은 장가계 국가삼림공원(국립공원), 천자산(天子山) 자연보호구, 췌지위 자연보호구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릉원을 장가계로 칭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

\* 명지대학교 교수

다. 장가계는 “살아있는 산수화”로 불릴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마치 성냥개비를 세워 놓은 듯한 수직으로 솟아 오른 기암절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감탄케 한다. 그래서 “인생부도장가계, 백세기능칭노옹 (人生不到張家界, 白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를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된들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으랴)”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약 3억8천만 년 전 이곳은 바다였으나, 지각운동으로 해저가 육지로 융기되어 솟으면서 수억 년 동안 비바람에 의한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쳐 오늘과 같은 협곡과 기이한 봉우리, 물 맑은 계곡, 아름다운 동굴 등의 자연절경을 이루어 낸 것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의 하나이다.

무릉원의 하이라이트는 해발 2,084m의 천자산이다. 천자산은 예로부터 ‘봉림의 왕’이라는 아름다운 칭호가 있을 만큼 경관이 기이하고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소수민족인 토가족의 수령 상대쿤이 자신을 천자라고 칭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3,500개 계단을 올라야 했지만, 1997년 천자산 정상에 이르는 길이 5km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오늘에는 누구나 손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천자산에 오르면 황제가 쓰던 붓을 꽂아두었다는 어필봉(御筆峰), 선녀가 꽃을 바치는 모습을 닮은 선녀헌화(仙女獻花) 등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천자산에서 서틀버스를 타고 능선 길을 따라 가면 원자제가 나타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기기묘묘한 바위 봉우리들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 풍경이 황홀해 혼을 잃는다는 미혼대, 2개의 바위 봉우리가 꼭 대기에 다리를 놓은 듯 연결된 천하제일교가 장관이다. 특히 천하제일교는 연인들이 영원히 변

치 말자는 뜻에서 서로의 이름을 적은 자물쇠를 매다는데, 잠근 뒤 열쇠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내쳐버린다고 한다.

무릉원의 또 하나의 일품명소는 천문동과 황룡굴이다. 천문동이 있는 천문산은 장가계 내에서 최고봉(1,528m)이다. 아흔아홉 굽이를 돌아 통천대로를 지나면 봉우리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이 터널의 이름이 천문동으로 지난 1999년 세계곡예비행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오늘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황룡굴은 1983년 지역주민이 약초를 캐러 다니던 중 발견하여 관광동굴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4층 규모의 높고 웅장한 구룡과 보트를 타고 관람하는 강을 무색케 하는 향수하(Noisy River)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적 규모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시대를 거슬러 살펴보면, 중국 대륙의 삼국시대는 후한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면서, 오(吳)나라는 건업(남경)을 중심으로 손권이 세우고, 경제의 먼 손자뻘인 유비가 세운 촉(蜀)나라는 성도를 중심으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후한의 헌제를 옹립하여 세운 위(魏)나라는 낙양을 중심으로 삼국으로 분립되어 약 50여 년 간 다투어 오던 시대였다.

이 무렵에, 후한 말 황건이 “장천은 이미 죽고, 황천이 마땅히 서야한다.”라는 구호 하에 난을 일으켰다. 황천의 세계관, 태평도와 매우 유사한 오두미도가 한중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정도 실현을 본 공동체적 이상 국가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새로운 종교적·정치적 공동체 질서를 수립하려 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강렬한 무장투쟁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수령 장각 등을 잃고 지역별로 분산되고 결국은 전국을 전란과 무질서 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러나 후한정부는 이미 이러한 혼란

을 수습할 능력을 잃고 있었다. 188년, 정부는 각 지방을 강력하게 통합하여 중앙으로 결집하기 위하여 각주에 군정·민정의 양면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주목(州牧)을 두기 시작했으나, 이는 오히려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낳았다. 또 같은 해에 '서원의8교위라고 하는 이름의 금위군을 증강하고 수도 방위력을 강화시켰으나, 행정부의 중추인 내조에서는 외척인 하진과 환관이 대립하였고 189년 4월에 영제가 죽자 하진이 8교위의 한 사람인 원소와 함께 환관의 주멸을 계획하는 상황이었다. 하진은 이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하태후를 위협하기 위하여 산서 지방의 군정·민정장관으로서 강력호란 군단을 통솔하고 있던 병주목 동탁에게 낙양 상경을 요청했다. 이것을 알게 된 환관들은 그 해 8월 하태후의 명령이라면서 하진을 내조로 불러들여 조정에서 그를 사살하였다. 원소와 그 종제인 원술 등은 즉각 금위군을 동원하여 이번에는 환관들을 죽여 나갔다. 죽은 자가 2000명에 달하고 그 중에는 수염이 없어서 환관으로 오인 받고 죽임을 당한 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후한정부의 실권을 그토록 오랫동안 장악해 온 외척과 환관, 이 양자를 포함한 내조 그 자체가 궤멸해 버렸다는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

한편, 중국문화의 상징인 차(茶) 문화는 오래 전 그 당시의 삼국시대에도 차를 마셨다는 상징적 기록으로, 육우의 다경에도 인용된 <삼국지> 중에서 <오지> 위요전에 보이는 차 이야기가 있다. 그 스토리인 즉,

“손호는 향연마다 좌석의 주량은 대략 일곱되를 한도로 삼았다. 요는 주량이 두되에 불과하여, 호가 처음부터 예우를 달리하여 은밀히 차를 내려서 술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런데 삼국 중에서도 관우나 장비와 같은 용장과 지용을 겸비

한 제갈공명을 가진 촉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제갈공명이 사망하자 촉나라는 위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위나라 재상인 사마염이 원제로부터 제왕의 자리를 빼앗아 황제로 즉위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진나라라고 하였다. 진나라는 잇따라 강남의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280년에는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 서진 때의 차 이야기라면 육우의 다경에 인용된 장재의 <성도 누각에 오르는 시>와 <순초의 노래> 및 진사왕기사>, 그리고 두육의 <천부>가 있다.

그리고 흉노의 추장인 유충의 낙양 함락으로 서진이 멸망한 이듬해인 317년에는 황족인 사마예가 강남의 건업에 동진을 세웠다. 이 동진시대의 차 이야기는 육우의 다경에 인용된 <진중흥서>, 진서의 <환온전>, 광박의 <이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이어오던 가운데, 오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높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천문산의 고봉에 하늘을 뚫어 놓은 듯한 동혈(洞穴)이 하나 생겼는데, 오늘날 천문동(天門洞)이라 부르며 하늘로 통하는 관문동(關門洞)의 뜻에서 상천동(上天洞)으로 세인들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관광명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천문동은 천문산 무릉원 영내에 있으며, 천문산 영역은 약 3억8천만 년 전에 해저에 있던 바다 밑의 지각 변동으로 융기되어 생긴 지표면의 산악으로 영겁의 긴 세월 동안 융기된 산들이 침적되었고, 그 중에 석회질성분이 용해되어 빠져나가면서 절벽 같은 요새(要塞) 지형의 산세를 이루어 마치 지각의 내면을 내시경으로 살펴볼 수 있게 깎아지른 듯이 곳곳을 잘라 단층으로 새겨놓은 모습은 자연의 대역사가 이룬 현대판 천문산적벽루라고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천문동의 동혈을 소형비행기로 관통해가면서 꼭예비행을 하는 공중퍼포먼스를 성공시킨 빅이벤트까지 있었다니, 예사로운 일만은 아닌 듯싶다. 여기에 꼬불꼬불 산길을 뚫고, 그것도 부족하여 구름이 덮이는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가설하고, 999개로 쌓아놓은 상천계(上天梯) 계단을 펼쳐놓아 우리 인간들이 잠시나마 하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훼손이 안타까운 일인 것을 어찌해야 하는 가 --- ! 이것이 바로 개발과 보존의 쌍벽이 아닌가? 그런데 당국에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999개의 층계 바로 앞에 다시 산 아래까지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힘의 대역사의 현장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써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감회에 젖어본다. 하지만, 영겁의 세월로부터 창조된 지하의 요새 황룡동굴에서 천상의 동혈 천문동에 이르기까지의 천문산 비경에 감탄과 탄성을 금할 길이 없다!!

## II. 스카이트래킹

천문산 요람(搖籃)을 케이블카를 타고 스카이트래킹을 하였다. 천문산의 비경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천문동으로 가는 99 굽이의 꼬불 길위를 7,455m의 세계최장의 케이블라인을 타고 마치 축지법을 써서 산악코스를 트래킹 하듯 쉽게 올라간다.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지만,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엄청난 비경의 원재들을 보고 느끼며 산봉우리를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기암절벽들을 살살이 살펴보기라도 하듯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쳐다볼세라 케이블카가 흔들리도록 분주히 이쪽저쪽을 구경한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저 멀리 아래쪽

에는 용이 꿈틀대듯 굽이쳐진 모습으로 서틀버스가 다니는 찾길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모바일 트래킹 코스이다. 천문산은 케이블라인(7,455m)의 길이에서, 해발운행높이(1,279m)에서, 천문동(높이: 131.5m / 넓이: 57m / 깊이: 60m)의 희귀성에서, 통천대로(99굽이)의 형태에서, 그리고 빼어난 주변 경관에서 세계 제일로 꼽힌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천문동혈을 관통비행한 세계 에어쇼(1999년)가 있다. 그 사이 한참을 올라가다보니 중간 기점에 정차하는 역에 도달한다. 안내원은 이곳에서 내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고는 꼭대기까지 오른 뒤에 정상 하차지점에서 내리니 안개구름이 뿌옇게 가려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옆 사람 얼굴밖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아내의 목청울린 소리를 따라서 좇아 내려간다. 그곳에서 주변의 경관을 가능한 한 보고난 뒤 사진을 찍어댄다. 한 장이라도 더 찍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움직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 다시 승차하여 내려간다. 허공 속에서 구름 위를 나르는 손오공이라도 된 듯싶다. 올라갈 때보다도 다른 풍경이 눈에 잡힌다. 이런 것이 절경인가보다!! 이래서 고생고생하면서도 여행을 하게되나보다. 가슴이 텅 비었다가 채워지기를 몇 번인가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 벌써 내리란다. 아까 지났던 중간기착지이다. 얼른 따라 내렸다. 밖으로 돌아 내려가 화장실을 들린 뒤, 서틀 버스에 승차한다. 1000여명의 베테랑 운전기사 중에서 불과 30여명만이 선발된 베테랑중의 베테랑급 기사님들이시란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 조금만 벗어나면 천 길인지 만 길인지 모를 텅 빈 낭떠러지 쪽을 벽을 삼아 달리는 운전 길이니 당연하다고 끄덕여진다. 아까 저 밑으로 내려다보았던 꿈틀대는 듯한 용의 몸체 위를 차를 타고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케이블카 트래킹하고는 또 다

른 모습의 기암절경을 가까이 쳐다보며 차를 타고 오른다. 말하자면, 서틀버스 트래킹인 셈이다. 케이블카 트래킹에다 서틀버스 트래킹, 그리고는 막판에는 육탄전이라도 하듯 두 발로 999계단을 걸어서 풀인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릉원 안에서라면 다 해보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골고루 해보는 것 같아서 더 좋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러는데, 내가 본 기암절경의 일부라도 사진에 담아온 것으로 글 대신 보여드려야겠다.

천문동으로 가는 케이블카의 등정승차, 다시 하산승차를 하여 중간지점으로 내려와서 그 비경을 목격하면서 꼬불길을 서틀버스로 올라가는데, 정말 아찔한 기분으로 절경을 보는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산길운전에 능숙한 기사들로부터 최소한 33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베테랑급의 베스트드라이버이니 믿어도 되겠지요.

손에 땀을 쥐 체 서틀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니, 상천제의 기단이 설치되어 있는 광장이 나온다. 그 위로 고개를 들어서 보니, 끝없이 보이는 상천제의 계단이 놓여있다. 그리고 뿌연 안개와 함께 건너편 하늘이 밝게 보이는 큰 구멍이 뿅 뚫려 있는 게 보인다. 바로 천문동이다. 사람들이 혹자는 뛰다시피, 또 다른 이는 기다시피, 각양각색으로 오르고 있다. 한참을 바라본 뒤, 오를 것을 결정한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놓여있다. 힘이 무척 들 것 같다. 이제껏 힘들여 따라 다녔는데, 여기서는 막판 힘까지 다 써야할 것 같다. 하지만 도중에 포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름을 시작하였다. 얼마 안 가서 숨이 헉헉 차온다. 땀이 비 오듯 한다.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몸은 힘들고 길은 가파르고

마음은 조금하기만 해진다. 그래도 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연거푸 사진을 찍으면서 오른다. 뒤 돌아서서 아래의 경관을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고 전후좌우의 찍을 거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빠 움직이며 계단을 올라간다. 하지만, 같이 출발한 사람들은 벌써 저 위에 오르고 있다. 땀을 연거푸 닦으면서 계속 오르는데,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도 어찌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지치지 않는 것인가? 그 답이 무엇인지는 상관도 없다.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바로 이것이 정답인가보다. 하늘로 통한다는 통천대로를 지나 999계단을 오르면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동굴인 천문동이라는데, 이제 바로 목전에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몇 계단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앞 사람이 끝인을 외친다. 이제 내 차례다. “대한국민(?) 만세”를 외쳐본다.

하늘에 다 달은 것 같다. 서늘한 통천바람에 벌써 땀이 다 말라버렸다. 이런 암벽이 어떻게 땀 뚫렸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천문동 돌레암벽의 위용과 주위 경관에 다시 놀랍다. 고개를 위로 들어 상벽을 보니 고산의 희귀종 낮은 키 식물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그사이로 로프줄이 걸쳐있는 것이 보인다. 관리용인지, 아니면 산악인들이 걸쳐놓은 것인지(?) 대단하게 여겨진다. 다시 올라온 아래쪽을 바라보니, 저 밑 중간 기단위에 빨간 옷차림의 사람들이 보인다. 아까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피리와 북을 치며 아리랑을 연주해준 토가족 사람들이다. 아까는 마음이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더니 이제 여유가 생기니 잘 보이는 것 같다. 내려가면서 그곳에 들러 우리민요 연주를 부탁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들(토가족)이 좋아하는 팁을 줌 주고 싶다. 스카이트래킹, 모바일트래킹, 이제 두발트래킹까지 합해서 “천문산 999상천제까지의 트래킹3종 완주”를 선언하고

싶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중의 하나인 9자가 셋이 모여진 999계단을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경사길 위에 설치하여 하늘로 뚫린 천문동에 연결해 놓은 상천계”

“이것도 부족할세라, 중국 당국에서는 천문동계단 바로 밑에서 수직엘리베이터를 가설하는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여 원가계에 설치한 그것과 같은 수직이동수단을 가설하고 있다.”

### III. 황룡굴 (黃龍洞)

중국 호남성 장사에 위치한 무릉원 내에 있는 황룡동굴은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석회동굴이다. 석회암동굴 지하도시에는 「정해신침」이라는鍾유석이 있는데, 인민폐 1억 원(한화 약 160억 원 상당액)의 보험계약이 되어있다. 1983년 약초를 캐던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자본투자가와 함작하여 개발하였다고 한다.

황룡동굴은 무릉원의 제일 동쪽에 있다. 1983년에 발견된 석회암동굴로 중국 10대 동굴중의 하나. '중화 최대의 아름다운 저택', '중국의 국실(國室)', '중유동 중의 최고'라는 이름이 따라다닌다. 굴은 상하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618ha이다. 그리고 굴속의 중유기둥 길이를 모두 합하면 14,000m에 달한다고 한다.

또 동굴 내에는 1곳의 물구덩이와 2곳의 하류, 3개의 폭포, 4곳의 연못, 13개의 궁정, 96개의 길이 있다. 동굴의 총 길이는 약 15km. 중유 중에는 '정해신침(定海神針)'이라는 높이가 19.2m에 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 1998년 중국 평안보험공사라는 보험회사에 1억원(인민폐)의 보험을 들어 유명해졌다.

처음 이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 들어간 탐사단원들이 일주일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동굴 안이 너무나 시원해서 나오기 싫었다고 한다.

동굴의 규모는 상식을 초월할 만큼 대단하다. 세계최대에 세계 으뜸의 석회암 동굴이라는 말이 가히 실감이 났다. 동굴 속에 강과 산이 엇갈리고 석회질이 응고되어 석순, 석주, 중유석으로 자라며 기암괴석의 형상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1. 동굴입구의 현판 사진

위의 사진은 동굴입구의 현판 사진이며, 아래 사진은 그 내부도이다. 동굴의 규모 못지않게 내부의 구조와 그 생성물도 대단하다.



그림2. 동굴내부 구조도 사진



그림3. 동굴입구에 이르는 도보길목과 노점들

주차장으로부터 동굴입구에 이르는 도보길목에는 길게 노점들이 이어져 있다. 왼쪽은 굴 입구로 가는 길옆에 원주민들의 토산품 판매장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다. 신기하게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접근하여 끈질기게 물건을 사 달라고 졸라대는데, 부르는 금액과 흥정 방식 및 현지 물가 정황을 잘 살펴보면 값에 바가지가 크게 붙어 있는 것 같다. 흔히 쓰는 호객 행위와 흥정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한 개에 천원!”하고 주인이 외칠 때, 바로 “두 개에 천원!” 하고 손님이 응대를 하면 얼른 따라와서 물건을 내주며 돈을 받아간다. 어느 상인은 “떨이”를 외치면서 팔기도 한다. 잘 하면 세 개도 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두개 천원!” 하고 응대를 하면 “밀진다!” 하고 거절 의사를 보이다가 다시 따라와서 흥정을 한다. 이 지역 원주민의 행상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많은 거래와 대화를 해온 결과인지, 발음도 매우 좋으며 흥정하는 모습도 우리네 인심을 잘 뚫어 보는 것 같다.



그림4. 황룡동굴 입구 목조계단과 입구 절벽 모습

황룡동굴에 다 달으면, 왼쪽사진에 보이는 목조건물계단을 올라서 관리사무실 앞을 지나 출입구 검표대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입구로 들어선다. 입구 위의 꺾어진 절벽바위에도 동굴입구 같은 구멍이 승승 뚫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황룡동굴이 있는 산은 전체가 석회암 지질이라고 한다.



그림5. 황룡동굴 입구에 세워진 한시 비문

그런 석회암산이 수억 년 동안 지하수와 공합을 맞춰가며 만든 동굴이 황룡동굴이다. 땅에서 솟아 자란 석순이 천장에서 내려 커진 종유석과 맞닿아 형성된 석주는 마치 르네상스고건축 기둥의 웅장함과 절묘한 무늬를 모두 다 담고 있는 듯하다. 동굴입구의 벽에 새겨진 글들. 마치 한시가 쓰여진 한 폭의 병풍 같다고나 할까?



그림6. 황룡동굴에 들어선 찬란한 조명과 내부 모습

다양한 색깔의 조명이 오히려 혼란스러우며 조명에 의한 녹색공해가 우려된다.



그림7. 황룡동굴의 향수하 선착장의 전동관람선

굴 입구를 들어서서 얼마 지나면 마치 강과도 같은 향수하(Noisy River)의 물위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게 되는데, 코스를 선택하기에 따라 배를 먼저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보로 걸어 올라가면서 구경을 한 뒤에 끝 순서로 배를 타고 나오기도 한다. 향수하는 길이가 2820m, 평균수심이 6m이며 최저수심은 12m이고 연평균온도는 1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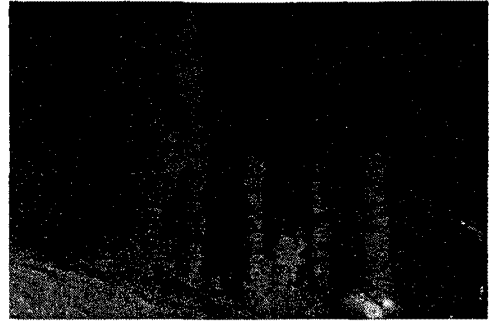
위의 사진은 관광객들이 승선을 하기 위한 선착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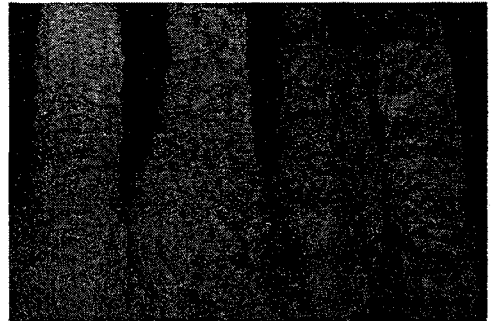
a)



b)



c)



d)



e)

그림8. 조명에 비친 화려한 종유석들의 모습

석순과 종유석의 성장 속도는 기껏 1년에 0.1mm 정도라고 하니, 1m 정도의 크기를 갖는 종유석이나 석순이라면 이미 1만년의 세월을 넘어 자라온 것이다. 황룡동굴 안에는 그 크기가 1m가 넘는 석순만 500여개가 훨씬 넘으니, 1만년 이상 장수를 누리고 있는 세월의 증인이 그만큼 된다는 셈이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것과 같은 용암동굴은 생성 직후부터 쇠퇴해 간다고 하는데, 황룡동굴과 같은 석회동굴의 경우는 영겁의 세월을 지나면서 자라고 또 자라온 종유



석주, 석순 등의 생성물들이다. 황룡동굴은 4층으로 되어 있다. 위쪽 2개 층은 물이 없는 동굴이며, 아래쪽 2개 층은 물이 있는 동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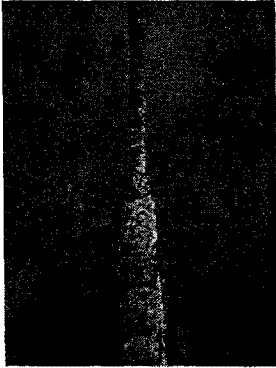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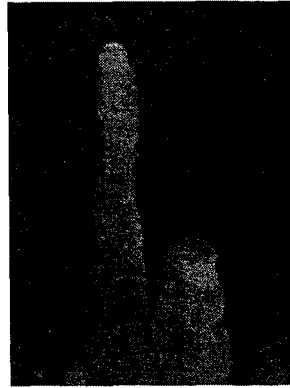


그림9. 한화 100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종유기둥 정해신침과 그 해설비문

배에서 내려 걷는 시간이 많은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갖가지 종유기둥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1억 위안(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액수)짜리 보험에 든 종유기둥도 볼 수 있는데, 높이가 19.2m 로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정해신침(定海神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동굴 내의 여기저기에서 인위적으로 꾸며서 만든 조형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황룡동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종유석주. 높이가 무려 27m에 달하는 석주가 있다. 다만, 이 종유생성물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아래서부터 자란 석주와 위에서부터 자란 석순이 맞붙은 것으로서, 그 많은 종유기둥 중에서 유일하다.



<넌 누구지?>

그림10. 마치 '너는 누구냐?'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묻는 것만 같은 손가락 엄지와 약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유석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 석회동굴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규모에 있어서 좀 차이는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생성물의 유형과 섬세한 아름다움은 중국의 그것과는 차별화되어 오히려 뛰어난 우월성을 지닌 것으로 비교, 평가된다.

하지만, 그들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애호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중국 호남성의 장가계시 무릉원(武陵源)에 있는 천문산(天門山)과 천문동(天門洞), 그리고 황룡동굴(黃龍洞窟)을 방문탐사 하였다. 천문동은 오나라 때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황룡동굴은 이 지역에 분포된 석회암 지대로 말미암아 영겁의 세월을 통하여 생성된 지하생성물의 극치이다. 천문산 고봉에 천문동혈(天門洞穴)과, 지하에 4층 규모로 된 산 같은 석회동과 내부의 향수하 하천이 이루는 경관은 역시 대국적이다.

지중벧길수로를 끌어안고 있는 황룡동굴은 과연 천산용동(天山龍洞)의 바로 그것이 아니던가!!

참고문헌

1. 周明發, “Rambling into ZhangJiaJie”, 中國攝影出版社, 2007.5.
2. 張新清 외, “魅力湘西”, 青海人民出版社, 2003.9.
3. 魏長水, “經典山水張家界”, 中國攝影出版社, 2006.7.
4. 胡 述, “奇山異水張家界”, 湖南人民出版社, 2006.8.
5. 魏長水, “黃龍洞”, 中國攝影出版社, 2007.4.